



제3회

미래도서관

정보정책포럼 미래도서관
공간, 콘텐츠, 사람들

'17. 11. 28.(화), 14:00-17:00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

주최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제3회 미래도서관 정보정책포럼

4차 산업혁명 등 다변화 사회에 도서관의 공간, 사람, 콘텐츠·서비스에 대한 정책과제 발굴 및 신규모델 창출을 통해 도서관의 진화하는 역할과 발전적 추진방향 모색

□ 개 요

- **주 제** : 미래도서관-공간, 콘텐츠, 사람들
- **일시/장소** : '17. 11. 28.(화), 14:00~17:00 /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
- **주 최** :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참가대상** : 도서관 사서 및 전국 문헌정보학과(교수 및 학생), 유관단체 등 300여명
- **발표 및 토론**
 - (진행) 황금숙 대림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류은영 문화체육관광부 사무관
 - (발제 및 토론) 도서관 및 문화예술·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 18명

구 분	발표 및 토론자
발제 (3명)	(공간) 이정희(주이가디자인랩 대표), (사람) 서혜란(신라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콘텐츠·서비스) 심원식(성균관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토론 (15명)	(공간) 황금숙(대림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김종대(디자인연구소 이선 대표) 박성진(월간 space 편집장), 박재우(지음 아틀리에 소장), 임호균(연세대 실내건축학과 교수) (사람) 정연경(이화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이진우(성북문화재단 도서관 본부장) 이용훈(한국도서관협회 사무총장), 정선애(서울시 NPO 지원센터장) (콘텐츠·서비스) 최희윤(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 김규환(전주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상해영(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교수), 오지은(광진정보도서관장), 이재윤(명지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허병두(서울 송문고 교사)

□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진 행
13:30 ~14:00	30' ▶ 등 록	* 진행 : 류은영 도서관정책기획단 사무관
14:00 ~14:10	10' ▶ 개회사 및 인사말	신숙원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
14:10 ~14:30	20' ▶ 발제(공간)	이정희 (주)이가디자인랩 대표
14:30 ~14:50	20' ▶ 발제(사람)	서혜란 신라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14:50 ~15:10	20' ▶ 발제(콘텐츠·서비스)	심원식 성균관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15:10 ~15:20	10' ▶ 휴 식	
15:20 ~17:00	100' ▶ 종합 토론	종합토론 * 진행 : 황금숙 대림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17:00 ~	▶ 폐 회	

제3회 미래도서관 정보정책포럼

목 차

■ 발 제 ■

▶ 공간분과 ◀

도서관 - 사람을 위한 장소 / 1

이 정 희 (주)이가디자인랩 대표

▶ 사람분과 ◀

도서관의 새 지평을 여는 사람들, 사서 / 15

서 혜 란 신라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 콘텐츠·서비스 분과 ◀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 도서관의 콘텐츠와 서비스는? / 27

심 원 식 성균관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 제3회 미래도서관 정보정책포럼 _ 공간분과 ◆

도서관 - 사람을 위한 장소

이 정 희 _ (주)이가디자인랩 대표

도서관 - 사람을 위한 장소

2017.11.28
미래도서관 정보정책포럼
공간분과위원
이정희

변화하는 도서관 추세

- 지역특성별 사용자 중심 (User-oriented)
- 2개 기능 이상의 복합시설화 (Multi-function)
- 생활기반시설로서의 역할 강화 (Infra-structure)
- 지역의 여가공간 (Larchiveum, Community center)
- 작은 도서관의 가능성의 재고 – 지역성 (Small Library)

- 제안배경 – 시대의 요구
 -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노동력 증가 – AI, Robot 등
 - 정보의 양과 유통의 극대화
 - 4차산업혁명
 - 지역성

- 도서관 (하드웨어) 패러다임의 변화
 - 복합적 기능
 - 지역커뮤니티 중심 시설화
 - 4차 산업혁명에 대응 – think-tank의 Platform

국내도서관 -군포 도서관



국내도서관 -군포 도서관



국외도서관 - 53st library NYC



국외도서관 - 53st library NYC



도서관 - 별마당 도서관



도서관 - 블루스퀘어 북파크



애플 스토어 밀라노 - lifestyle



현대카드라이브러리 - 디자인, 트레블, 뮤직, 쿠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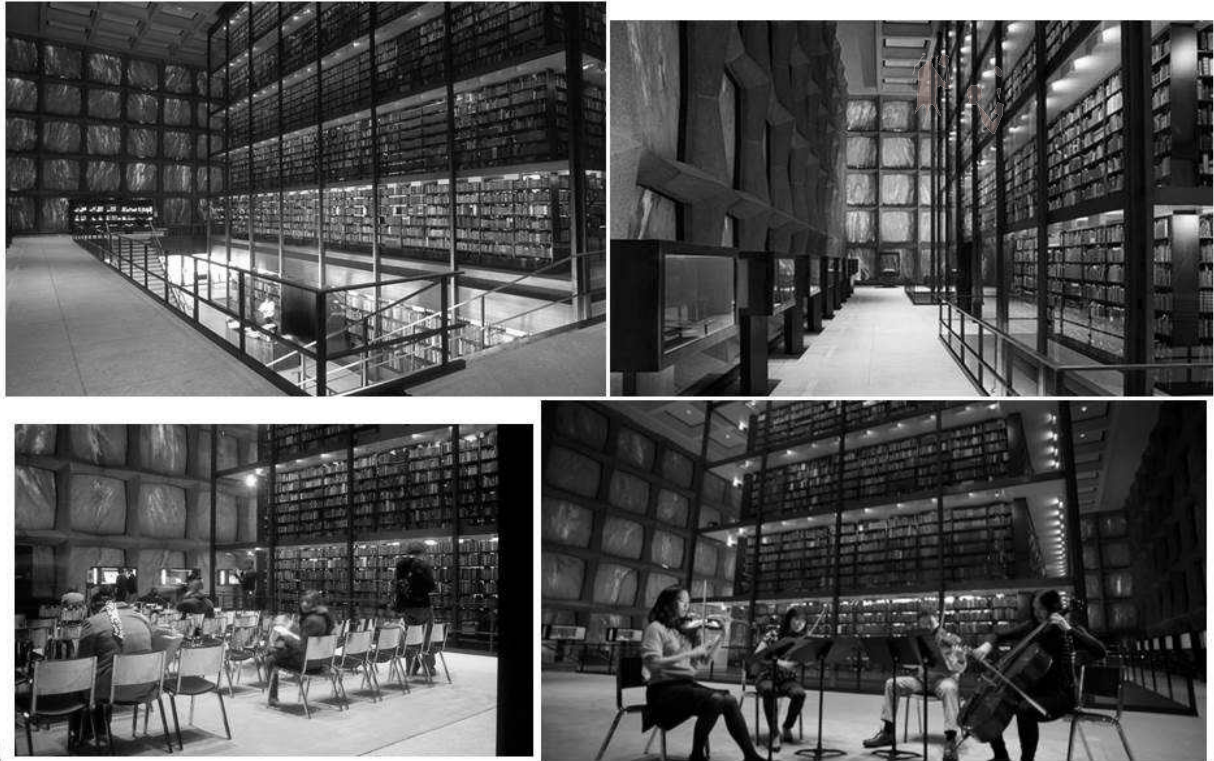


Idea store - London





예일대학교 도서관 – Beinecke Rare book and manuscript libr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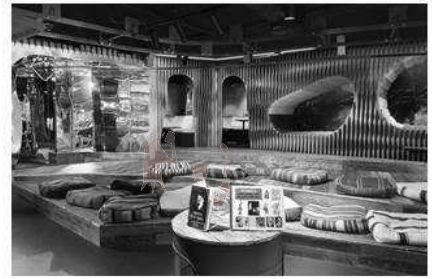
영국 의학도서관
- Wellcome library Lond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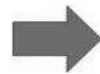


노르웨이 어린이도서관
- Biblo Toyen Oslo



• 다시 도서관의 본질로

Think-Tank Platform:
object-related,
theme-oriented



복합기능시설
라키비움
커뮤니티 센터
여가공간
연령별공간

감사합니다

◆ 제3회 미래도서관 정보정책포럼 _ 사람분과 ◆

도서관의 새 지평을 여는 사람들, 사서

서 혜 란 _ 신라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제3회 미래도서관 포럼,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
2017.11.28



도서관정책기획포럼 사람분과

도서관의 새 지평을 여는 사람들,
사서

발제자
서혜란 (신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사람분과 활동 개요

• 위원 구성

이름	소속
정연경(분과장)	이화여대 교수
서혜란	신라대 교수
이용훈	한국도서관협회 사무총장
이진우	성북문화재단 도서관본부장
정선애	서울시 NPO지원센터장

• 회의

차수	발제자	제목
1		문체부 추진과제 설명 및 토론
2	이진우	도서관 인적자원 현황 및 정책
3	정선애	주민이용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 역할변화와 사서 역량
4	정연경	전문직으로서의 사서직: 동향과 전망
5	서혜란	사서인력 양성체제와 자격제도 개선
6	이용훈	새로운 사서양성과 배치방식을 상상하다



발제내용 요약

도서관 인적자원 현황 및 정책 / 이진우

• 주요 논의 사항

1. 도서관 발전의 패러다임 변화(양적 확대 → 질적 성장)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와 역량강화 정책 개발
 - 최소인력 가이드라인 제시와 적정 사서 인력 확보 정책 필요
 - 사서의 정보소외 문제 해결 및 정책시야 확대 방안 개발
 - 지역의 전략과제와 도서관의 역할을 연계할 수 있는 사서역량 교육 강화
 - 독서, 출판, 서점 등을 넘어서 예술, 과학 등 다양한 분야와 도서관을 접목하는 정책토론회 개최
2. 자원봉사자, 독서동아리 활성화
 - 지자체 단위의 정책 수립과 집행이 지역특성 파악과 대응에 효과적
 - 형식적 자원봉사활동 배제
 - '생활문화' 확산에 따른 동아리 활동 분야 확대 육성

3. 도서관의 지역성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발과 지원

- 마을공동체 거점 공간으로서 공공도서관 역할에 대한 관심 증대
 - 주민참여 자치활동 확대
 - 도서관의 복합화: 공간 연계 및 프로그램 협력
- 도서관의 지역성 강화 정책 필요
 - 정보공유와 자원화를 매체로 지역의 기관, 단체, 주민을 연결하는 도서관의 지역성 강화 필요
 - 지역의 인적자원을 도서관서비스와 연결하고 도서관의 적극적 이용자로서 활동하도록 함으로써 도서관의 활동영역 확장 필요
 - 경험과 사례 부족

4. 다양한 관점을 가진 사서들의 자발적 논의 구조 육성 정책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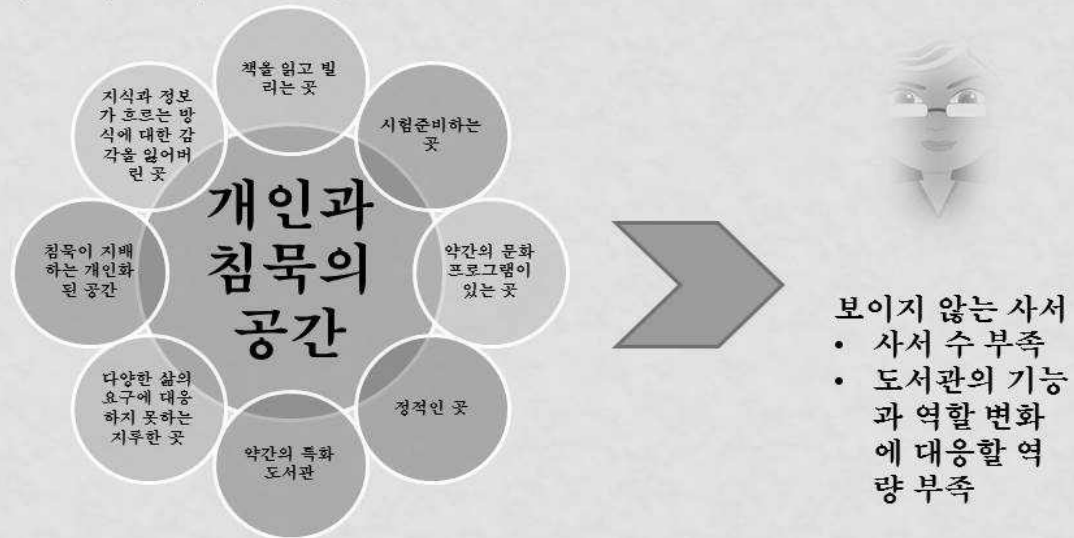
- 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자발적 연구와 정책제안 활동 활성화
- 비판적 시각과 제안을 수용하는 문화 확산 필요
- 대학 관련 학과의 수업을 도서관 현장과 연계 학점화

• 추진방향

1. 사서인력 확보를 우선에 둔 정책 수립
 - 도서관 건립시, 설계 단계 이전부터 사서인력 채용
 - 도서관법상 최소 인력 미확보 도서관에 대한 제재—각종 지원, 공모사업, 수상 등 제외
2. 지역분권적 도서관 정책수립으로 현장과의 소통 강화
 -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구분
 - 현장 사서들의 요구와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체계 필요
3. 사회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모임 활성화
 - 4차산업혁명 대비 도서관의 역할 혁신 담론의 공론화
 - 타 분야 전문가와 함께 하는 정책토론회
 - 대학의 연구활동과 현장의 경험을 연계하는 지원정책 추진
4. 공공도서관의 지역성 강화를 위한 정책 모델 및 지원시스템 개발
 - 지역정보와 자원의 거점으로서의 도서관 역할
 - 단절된 지역사회를 소통으로 이끄는 공론장으로서의 도서관 역할

주민이용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의 역할 변화 와 사서 역량 / 정선애

• 시민의 도서관 인식



• 주요 논의 사항

1. 가장 접근성이 좋은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 도서관
 - 개인이 시민이 되는 공간
 - 인권친화적 공간: 정보불평등의 해소
 -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공간

• 추진 방향

1. 도서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성
 - 도서관장과 사서, 이용자, 자원봉사자+시민단체, 지역의 공공공간 운영자 (평생학습시설, 서점, 마을카페, 지역예술가 등)
2. 사서의 역할과 역량의 재구성
 - 시대의 흐름, 공동체의 '문제'와 '관심사'를 중심으로 도서관이 가진 지식과 정보를 재구성할 수 있는 감각과 능력
 - 지역의 인적자원 발굴 활용
 - 연결자와 촉진자로서의 사서
 -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 촉진
 - 문제 해결을 위한 기관 정보 등을 제공하고 네트워킹하는 연결자
 - 도서관 밖으로 나가는 사서
 - 평생학습시설, 자원봉사센터, 청소년문화시설, 장애인, 어린이, 노인공간 등
3. 도서관과 사서의 성과평가 기준 혁신

전문직으로서의 사서직: 동향과 쟁점 / 정연경

• 미래 사서직에게 필요한 역량

- Advocacy/Politics
- Collaboration
- Communication/People Skill
- Creativity
- Critical Thinking
- Data Analysis
- Flexibility
- Leadership
- Marketing
- Technological Expertise

(출처: M. Schwartz, 2016. "Top Skills for tomorrow's librarian", Library Journal, March 9.)

• 사서직의 지향점

전통적 사서직	미래지향적 사서직
✓ responsive	✓ anticipatory
✓ individual customer	✓ team of collaborators
✓ standardized	✓ customized
✓ single transaction	✓ ongoing projects
✓ service	✓ partnership

• 전문성 확립을 위한 전문가협회의 역할

- 지속적 교육기회와 최신 정보 제공으로 전문직의 자기 개발 지원
- 고용과 승진가능성, 합당한 대우와 보상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서직 관련 정책 점검
- 사서직에 대한 마케팅과 브랜드 가치 구축

사서인력 양성체제와 자격제도 개선/ 서혜란

• 주요 논의 사항

1. 현 체제의 특징과 문제점

- 다양한 양성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의 질 관리 취약
- 사서의 학위 수준 혹은 실습 요건 등이 전문직으로서 높지 않음
- 자격증 취득자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소양에 대한 전문성 관점에서의 규제가 없음
- 자격증 소지자의 지속적 증가로 공급과잉 우려
- 개설 교과목의 한계
- 불합리하고 유명무실한 사서자격증 3등급 체제
- IFLA가 2012년 개정한 Guidelines for Professional Library/Information Education Programs에서 제시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함

2. 지금까지 제시된 다양한 개선방안의 정리와 평가

유형	평가
교육과정 표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공학점 상향, 필수과목 지정은 교육부의 고등교육 정책방향과 불일치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합의 도출 어려움 ✓ 폭넓은 교양과 변화 적응력 대신 지식의 폭이 좁은 사서를 양성할 위험성
양성과정 인증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의 질 관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 ✓ 자기평가+인증평가 ✓ 평가인증제도화에 상당한 시간 필요 ✓ 양성기관의 부담 증가(대학의 구조조정 관련 불리한 조건)
자격시험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전문자격제도에 적용된 사례 풍부 ✓ 자격증 과잉 발급 문제 해결 가능 ✓ 교과과정 표준화, 시험과목과 수준, 시험방법 등에 대한 합의 필요 ✓ 시험제도 운영비용의 정당화와 재원 마련 필요 ✓ 사서에게 필요한 소양과 태도, 리더십 측정이 어렵고 단순한 지식 정도 측정에 치우칠 우려 ✓ 시험대비 교육으로 양성기관의 교육 왜곡 우려 ✓ 대학의 구조조정 국면에서 신입생충원율 하락 가능성

유형	평가
자격증 갱신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교육 강화로 전문성 향상 가능 ✓ 자격증 남발 억제 ✓ 갱신조건, 갱신주기 등 충분한 연구와 합의 필요 ✓ 경력단절자를 위한 구제절차의 필요성과 구제조건 논의 필요
사서등급 재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 난이도와 책임성을 반영하는 등급과 자격요건 설정으로 현행 사서등급제의 문제점 해결 ✓ 직무분석과 표준 직무기술서 마련 필요 ✓ 완전한 직위분류제 도입 등 공무원 조직의 혁신이 전제되어야 실효성을 가짐
전문사서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과정은 일반사서 양성, 대학원과정은 전문사서 양성으로 이원화한다면 전문사서의 기본학력을 상향조정하는 효과 기대
계속교육 인증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서의 교육기회 확대와 교육훈련의 품질 보장 가능
실무실습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서직의 현장적응력 향상에 유리 ✓ 대학의 유연학기제 도입 정책 활용 ✓ 해외실습 장려로 해외취업 기회 확대 연계 ✓ 실습기관 관리(실습교육기관 인증, 실습훈련프로그램 표준 제정 보급 등) 필요

• 추진 방향

1. 교육내용과 방식의 변화

- 기능과 지식 중심 교육 → 소양과 태도 훈련 강화
 - 도서관과 사서의 철학과 윤리
 - 커뮤니케이션과 리더십
- 이론 중심 교육 → 지속가능하고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 강화
 - 정책대안 제시, 예산확보와 기획 능력
 - 진화하는 ICT에 대한 열린 자세와 유연성
 - 실무실습과 계속교육의 내실화

2.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인력 양성

- 국제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리더
- 후발국가를 위한 지원과 교류협력

새로운 사서 양성과 배치 방식을 상상하다 / 이용훈

• 사서자격제도

1. 필수이수과목 지정과 이수단위 상향
 - 사서자격 급별 이수과목과 수준 차이를 명시적으로 규정
 - 교과목 심의는 도서관협회 또는 (가칭)사서자격관리위원회의 권한으로
 - 사서교육원 설치와 평가 절차를 법률로 규정
 - 사서직의 철학과 윤리, 역사 과목의 필수화
2. 전문사서제도 도입
 - 의학사서와 법률사서 법제화

• 사서직제

1. 행정직군에서 분리하여 독립직군화 또는 연구직군으로 전환
2. 사서자격제도와 사서직제의 일치

정책과제 제안 요약

제안자	제안내용
이진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서배치기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청회 등 과정을 거쳐 관중별, 지역별 특성과 현황을 반영한 기준 마련 ✓ 사서배치, 사서직관장제 등 기준 준수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 및 패널티 부여 2. 사서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과 '사서' 중심의 조직체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와 평가체계를 개별 도서관 단위에서 지역 단위로 전환 ✓ 사서협의회를 통해 사서들이 도서관정책 과정에 조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계 마련 3. 사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교육방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는 교과과정(예: 도시재생과 도서관, 지역문화와 도서관 등), 타 분야와 함께하는 포럼 등으로 사서의 이해 영역 확대 ✓ 국립중앙도서관의 개인별 사서교육 방식을 지역의 집체교육방식으로 확대 4. 사서의 활동을 도서관 밖으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분야, 기관에서 정보 조직과 공유 업무를 담당하도록 사서의 위상과 역할 확대

제안자	제안내용
정선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서관 핵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문제에 대한 관심과 해결능력을 가진 시민과 시민단체, 관련시설 운영자, 지역기반 스토리를 창작 확산하는 예술가 등 참여로 주민친화적 공간으로의 자리매김 가능 2. 사서의 역할과 역량 재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결자, 촉진자, 지역네트워크의 중심축 ✓ 도서관 밖 영역에서 지식의 안내자 역할을 위한 사서 배치 3. 도서관과 사서의 성과평가 기준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참여 거버넌스 구성, 지역사회 협력사업 실적에 대한 질적 평가 필수화
정연경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중별 사서 자격요건과 역할에 대한 국제적 비교 연구 2. 사서직의 전문성 증진을 위한 교육지침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능한 사서가 갖추어야 할 소양 규정 3. 문화유산기관 종사 인력자원 관리와 협업에 관한 총체적 연구

제안자	제안내용
서혜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서자격증 갱신제도(유효기간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효기간 동안 소정의 실무경험+계속교육 이수 ✓ 자격증 소지자의 능력과 소양 관리로 전문성 보장, 자격증 남발 억제 2. 계속교육 인증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교육기관 설치+대학 및 대학원 문헌정보학과와의 협력 3. 전문사서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사서(general librarian)+전문교육과정(대학원 혹은 1년 이상의 전문과정)+관련 실무경험 4. 교육과정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과정을 비롯한 교육기관의 제반 요건에 대한 지침 마련 ✓ 인턴제도, 교육훈련기관 인증제 등 실무실습교육 강화
이용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서자격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서자격제도 주도적 운영 ✓ 제시된 다양한 방안에 대한 사서 등 의견 청취 후 추진 2. 사서직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서직의 독립직군화 또는 유사직(학예직, 기록관리직)과 함께 새로운 직군 생성 ✓ 현장 직위와 사서자격증 연계 (관장/관리자=1급정사서)

감사합니다

◆ 제3회 미래도서관 정보정책포럼 _ 콘텐츠·서비스 분과 ◆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 도서관의 콘텐츠와 서비스는?

심 원 식 _ 성균관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제3회 미래도서관 정보정책포럼

콘텐츠·서비스 분과

최희윤(분과장, 도정위 지식문화경쟁력강화 소위원장)
김규환(전주대학교 교수)
성해영(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교수)
심원식(성균관대학교 교수)
오지은(광진정보도서관 관장)
이재윤(영지대학교 교수)
허병두(도정위 도서관정책기획 소위원장)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 도서관의
콘텐츠와 서비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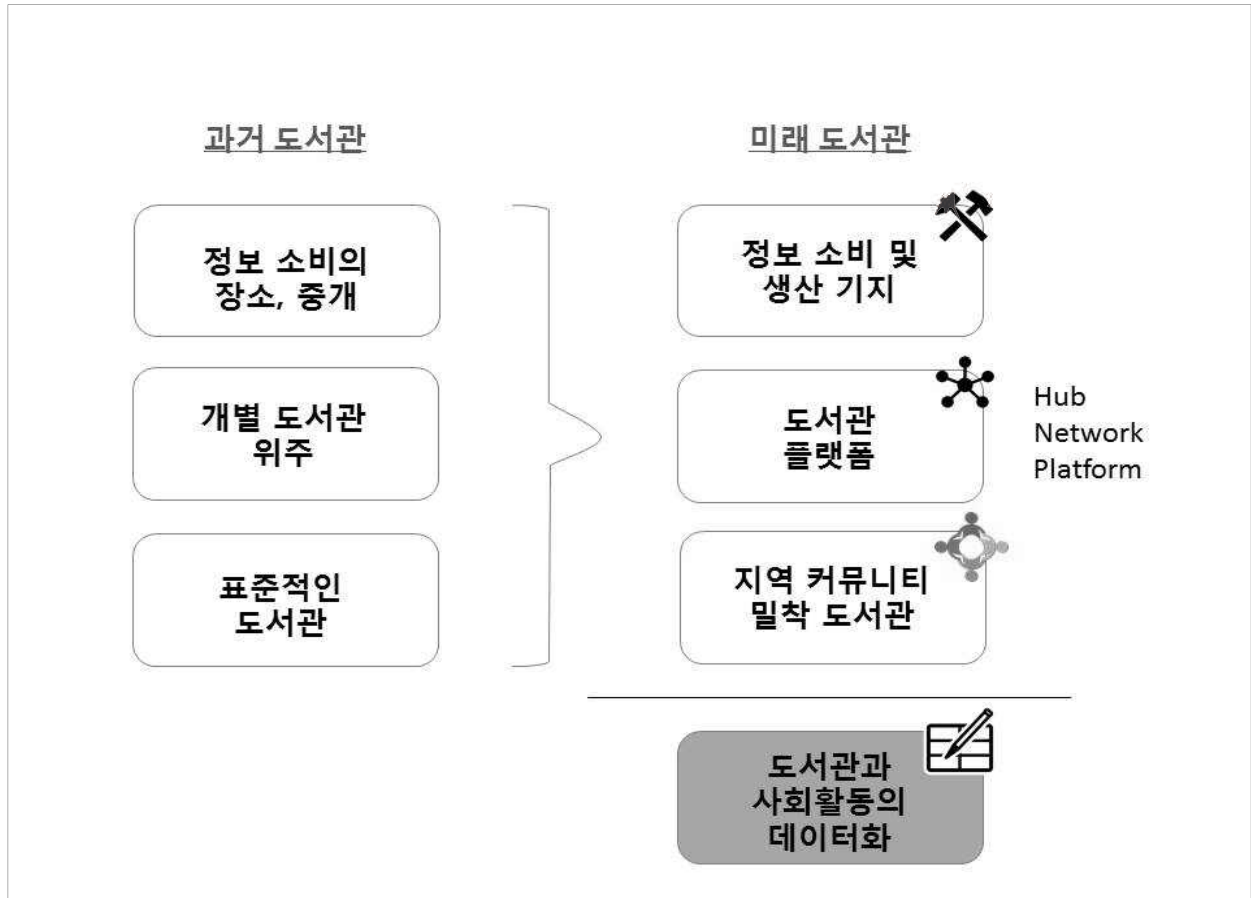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 제안

- 도서관, 기억의 동반자
- 만들고 배우고 공유하는 우리 동네 창작소
: 공공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의 강화 및 발전을 위한 제안
- 4차 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도서관서비스 체계 구현
-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도서관 데이터 기반 확립
- 도서관 기반 인문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시행
-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서평 콘텐츠 기획
- 지역밀착형 민간운영(지자체와 연계하는) 융복합 도서관 단지 건립
- 도서관에 책쓰기 교육 센터 기능 도입
- 도서관 기반 데이터 융합 인프라 “Smart Data Library” 구축
- 지식정보의 확산과 공유 활성화를 위한 오픈액세스 선언, 국가도서관 사서 펠로우 제도 도입 등 다수의 아이디어 제안



암묵적 가정

- 상당수의 도서관은 이미 기본적인 서비스와 자료 기반 구축
- 도서관은 사회, 환경, 기술 변화에 대응, 적응



도서관, 기억의 동반자

- 도서관을 대표적인 기억기관(memory institute)로 개발
4차산업혁명, 급속한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의 정체성 유지
- 개인의 기억 자료를 도서관이 보존,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교육
- "기억"이라는 테마를 중심으로 관련 프로그램 서비스 통합
(자서전 쓰기, 마을구술사업, 치매환자및가족 지원 등)
- 매년 11월 전국의 도서관에서 "기억의주간" 행사 개최
(4월 도서관주간+9월 독서의달+11월 기억의주간)
- 개인 아날로그 및 디지털 기록 보존 기술 및 교육 지원

공공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의 강화 및 발전

- 4차 산업혁명, 고용구조 변화, 삶의 모습 및 환경변화에 대응
- 평생교육기관으로 도서관에서 메이커교육 실시 필요
- 공공도서관은 메이커스페이스의 최적 플랫폼
 - 전국에 걸쳐 1,000개 이상 존재
 - 주말에도 개방
 - 모든 연령대의 이용자 보유
 - 물리적 및 정서적으로 우수한 접근성
- 단기적 대응전략
 - 기존 공간 활용 ZERO TO MAKER (메이커양성) 프로그램 집중 운영
 - Maker의 개념확대(ICT기반 → 1차 2차 산업을 포괄하는 개념)
- 중장기적 대응전략
 - 메이커스페이스 전용공간의 구축
 -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
 - 지역 내 자원봉사 및 협업의 활성화
 - 메이커 활동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 내외부 홍보 및 플랫폼 서비스 준비

공공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의 강화 및 발전

- 4차 산업혁명, 고용구조 변화, 삶의 모습 및 환경변화에 대응
- 평생교육기관으로 도서관에서 메이커교육 실시 필요
- 공공도서관은 메이커스페이스의 최적 플랫폼
 - 메이커스페이스 전용공간의 구축
 -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
 -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확보
 - 지역 내 자원봉사 및 협업의 활성화
 - 메이커 활동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 내외부 홍보 및 플랫폼 서비스 준비

4차산업혁명기술 활용 고부가가치 서비스 체계 구현

- 4차 산업혁명 기술 중 도서관 서비스 분야 적용 기술 발굴 및 현장 적용 추진
 - 민·관·학 연계 협력체제 구축
 - 도서관 현장실무자를 주축으로 한 도서관 서비스 개발 추진
- IoT 기반 도서관내 위치 기반 맞춤형 서비스 추진
 - 관중을 넘어선 개방형 플랫폼으로 추진(범부처간 협력 필수)
 - 국내외 IoT 기반 도서관 서비스 우수 사례 발굴 및 지원 확대
- 가상현실(VR) 및 증강현실(AR) 기반 도서관 서비스 추진
 - VR과 AR 산업 시장 규모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 스마트폰이 아닌 VR(AR) 기기를 활용한 도서관 서비스 재구성
- 도서관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형(AI) 서비스 체계 준비
 - 도서관 빅데이터 수집 범위 확대 및 품질관리체계 구축
 - 도서관 맞춤형 인공지능 서비스 전환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도서관 데이터 기반 확립

-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기술이 아닌 플랫폼
- 도서관 체제를 양면 네트워크 플랫폼으로 전환
 - 개별 도서관 단위의 콘텐츠 및 서비스 제공에서 지역, 국가 수준의 협력 또는 도서관 네트워크가 개방적으로 데이터와 정보를 공개 및 교류
- 근거(데이터) 중심 실무로 전환
 - (빅)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및 서비스
- 도서관 내부 데이터(서지데이터 + 운영데이터) 표준화 및 거버넌스 체제 정비
 - 서지데이터 기반 정립(표준 서지번호 적용)
 - 운영데이터의 상시 수집 및 활용 플랫폼
 - 국가 도서관 대시보드 구축

도서관 기반 인문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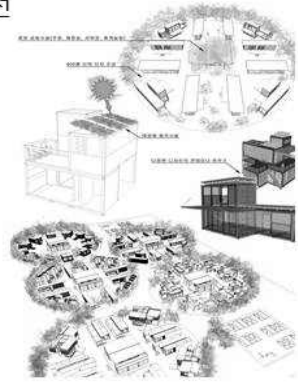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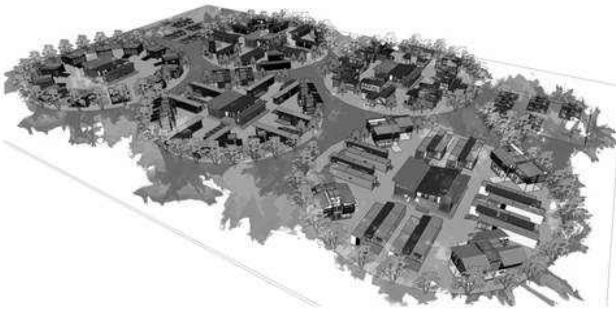
- 사회환경 변화
 - 개인의 권리 의식 향상
 - 초고령화 사회 전개
 - 교육 수준의 향상
 - 경제 수준의 향상
- 기술 발달, 여가 시간 증대, 복지 정책 확대에 따른 문화, 예술, 인문 수요 폭발적 증가 → 도서관을 종합적인 문화 공간으로 발전
- 도서관 기반의 다양한 인문 콘텐츠 개발 및 관련 프로그램 시행
 - 지혜 학교 개설 및 운영
 -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 동아리 지원 사업
 - 중고생을 위한 “자유 인문토론 캠프”
 - 실버 세대 대상 인문 심화 프로그램 시행
 - 새싹 인문 교실
 - 다문화가정/새터민 자녀 대상 인문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서평 콘텐츠 기획

- 서평은 중요한 독서 문화 진흥의 길잡이
- 우리나라는 아직 서평 문화가 정착되지 못함
- 향후 도서관의 서평 문화 형성의 기반으로 기능
 - 도서관의 서평 관련 기능 강화
 - 분야별, 주제별 전문서평 시스템 구축
 - 다양한 포맷의 영상 콘텐츠로 가공을 통한 확산
 - 서평과 도서관의 인문 강연 연결하는 네트워크 형 사업 개발

지역밀착형 민간운영 융복합 도서관 단지 건립

- 공동보존서고와 상호 보완되는 지역 기반의 민간 지식문화 공간 건립 필요
- 지역과 밀착하여 지역의 문인, 저자, 예비 저자 등이 참여하는 융복합 도서관 단지 건립 필요
 - 도서관의 폐기 장서, 개인 소장 장서를 창조적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
 - 보존, 이용에 그치지 않고 저서 집필, 전시, 작업, 교류, 교육 기능 강화
 - 융복합 도서관 단지 건립을 통해 지자체 중심 국가로 발전



도서관을 책쓰기 센터로 패러다임 전환

- 독해 위주의 수동적 읽기에서 '쓰기'를 위한 능동적 읽기로 추세 변화
- 책쓰기 교육은 단순히 한 권의 책을 쓰는 능력이 아니라, 자신만의 주제 설정을 통해 시민 스스로를 주체적 존재로 성장하게 만드는 일체의 과정과 결과
- 학교와 국가, 지자체 등을 연계하는 중심으로서 도서관의 중요성 더욱 강화
- 도서관을 과감하게 지식 창조와 생산, 나눔 위주로 패러다임 전환 요망!
 - 학생과 시민을 위한 책쓰기 교육 수준별 과정 개설하여 지도자 양성
 - 시대에 걸맞은 다양한 '책'의 개념 확대와 인식 전환 교육 확산
 -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별로 차별화된 '책' 특화 콘텐츠 개발
 - 지자체별로 특화 도시로 육성, 다양한 '책쓰기 교육' 개발과 확산

도서관 기반 데이터 융합 인프라 Smart Data Library 구축

-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도서관의 신역할 모형 정립 필요
 - 도서관은 전통적으로 문헌 중심의 자원개발 및 정보 접근성 향상
 - 데이터 중심의 분석 기반서비스 등 고품질 데이터 인프라 부재
 - 데이터 보존 및 활용 역할 등 도서관 기반 데이터서비스 부재
 - 지역 특화 정보자원 및 데이터 구축, 다문화 사회를 위한 기반 데이터 부족
- 지역 활동, 국가 R&D 활동에서 생산된 데이터의 유통 선순환 구조 마련 필요
- 데이터와 정보를 연계, 융합한 도서관의 확장된 역할 모형이 필요
 - 산학연 연계를 통해 인문학은 물론 과학기술, 비즈니스 등 융합 정보 인프라 제공
 - 연구개발자/스타트업을 위한 창의적 정보인프라 제공
 - 정보와 데이터의 보존 및 지속가능 접근체계 마련 통해 후대에 전승 및 활용
- 이를 실현하기 위한 **Smart Data Library(SDL)** 구축
 - 공공도서관은 **SDL**의 정보인프라를 이용하여 기술지원, 정보지원, 매체지원 및 공간지원 등의 하이브리드형 서비스 제공



도서관의 인력 부족 해결
도서관 및 사서의 정체성 재정립
도서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도서관 바깥과의 네트워크 구축